

LAB 시장 “2003년 최악의 한해”

원료가격 23% 상승에 LAB 가격은 하락 ... 아·태 경쟁이 문제

대표적인 계면활성제 생산기업인 Clariant, Huntsman, Rhodia, Stepan 등이 시장여건 악화에 따라 현금흐름 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관계자들은 단지 사업성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대형 소매기업들과의 경쟁의 심화되고 원료코스트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계면활성제 생산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계면활성제 생산기업들은 범용 및 특수 할 것 없이 대부분 저조한 수익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제품은 계면활성제 전구체(Precursor) LAB(Linear Alkylbenzene)이다.

LAB 생산기업 Petresa는 2003년을 최악의 해로 평가하고 있는데, Kerosene 및 벤젠(Benzene) 가격상승에 따라 생산코스트가 뛰어올랐으나 세제 Alcohol과 같은 계면활성제 대체제가 등장해 가격을 인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한 LAB 소비신장률도 1% 미만으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Sasol에 따르면, 2003년 들어 원료가격은 평균 23% 상승한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쟁이 확대되면서 LAB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세제 Alcohol 시장 전망은 비교적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Shell Chemical은 Alcohol이 LAB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해 갔으며 시장규모도 5% 이상 증가했으나 수익면에서 볼 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수 계면활성제 분야에서는 Akzo Nobel이 다른 분야의 생산기업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수익실적을 올렸으나 새로운 생산설비에 투자할만한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kzo는 석유나 가스대신 우지(Tallow)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이후 원료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2003년 들어 소비재 생산기업들이 활성요소 함량 감축 및 Formulation을 개발로 코스트 절감에 나서면서 Akzo의 고코스트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매출이 감소했다. Akzo의 핵심 수요처인 공업분야, 즉 농화학 및 아스팔트 분야의 수요도 감소세는 나타냈는데, 아스팔트 사업에서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유화제(Emulsifier)로 사용되나 정부의 예산절감에 따라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수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메이저 가운데 하나인 BASF는 2003년 비누 및 세제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 경기침체 및 원료·에너지코스트 강세로 타격을 받았으나 신제품 상업화에 성공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학저널 2004/04/27>